

3월 금융시장 브리프

2025. 3. 6.

[2월 국내 금융시장 동향]

- 2월 중순까지 반등하던 원화와 증시는 하순경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약세 전환하고, 금리는 예견된 한은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보합세

[최근 현안: 한미 장기금리 비동조화 요인 점검]

- 그동안 동조화되던 한·미 10년 국채금리가 24.9월 이후 미국은 기조적으로 상승(2월 하순 이후 트럼프 관세 우려로 반락)한 반면, 한국은 계속 낮아지면서 한미 장기금리 역전폭이 크게 확대
* 장기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인(실질금리, 인플레이션, term premium)을 중심으로 분석
- **(실질 단기금리)** 과거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한국 GDP 성장률이 23년부터 미국을 하회(실질 단기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수준에 의해 결정)
- **(기대 인플레이션)** 22년 이후 동반 하락하던 기대 인플레이션(서베이)이 최근 들어 미국은 급등하고 한국은 안정
- **(기간 프리미엄(Term Premium))** 미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한국을 큰 폭 상회하고, 장기채 발행 비중도 한국보다 높아질 전망
- 위의 3대 요인을 종합할 때, 당분간 한·미 장기금리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·미 장기국채 스프레드를 반영해온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중 1,4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

[3월 금융시장 전망]

- 미 연준은 고용·소비 등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,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3.18~19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(상단 4.50%)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
- 국고채 금리는 2%대로 반등한 소비자물가 상승률, 고환율 지속, 상반기 추경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, 국내 경제 하방위험 확대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여 하락(국고채 3년물: 2월말 2.57% → 3월말F 2.50%)
-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, 한·미간 경제 펀더멘탈 차이 등을 반영하여 1,430~1,460원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(원달러: 2월말 1,460원 → 3월말F 1,440원)
- 국내 증시는 정치적 혼란 완화와 연기금 순매수 기조, 미 어닝시즌 서프라이즈 가능성,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후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기대감 등으로 KOSPI 2,600pt대 후반에 안착을 시도할 전망(KOSPI: 2월말 2,533 → 3월말F 2,680)

작성자: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종 센터장(02-2173-0568), 서보익 센터장(02-2173-0532)
허지수 책임연구원(02-2173-0556), 김민서 인턴(02-2173-0566)



목 차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2월 금융시장 동향 | 1 |
| [참고 1: 2.25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] | 2 |
| II. 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 | 3 |
| 한미 장기금리 비동조화 요인 점검 | 3 |
| III. 3월 금융시장 전망 | 8 |
| [붙임 1]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| 11 |
| [붙임 2] 국내외 금리·환율·주가 추이 | 12 |

I. 2월 금융시장 동향

■ 2월 중순까지 반등하던 원화와 증시는 하순경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약세 전환하고, 금리는 예견된 한은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보합세

-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고용·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2.65%까지 고점을 높였으나,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지연과 미국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2.5%대로 반락(2.3일 2.57% → 2.28일 2.57%)
-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와 유가하락으로 1,431원까지 하락하였으나, 미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달러화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반등(2.3일 1,462원 → 2.28일 1,460원)
- KOSPI는 미 증시의 주도력 약화, 국내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 강화(24.11월 이후 KOSPI 7.8조원 순매수)로 글로벌 증시 중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2,600선을 회복했으나 미 관세정책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급락(2.3일 2,453 → 2.28일 2,533)

미국 국채금리, 한국 국고채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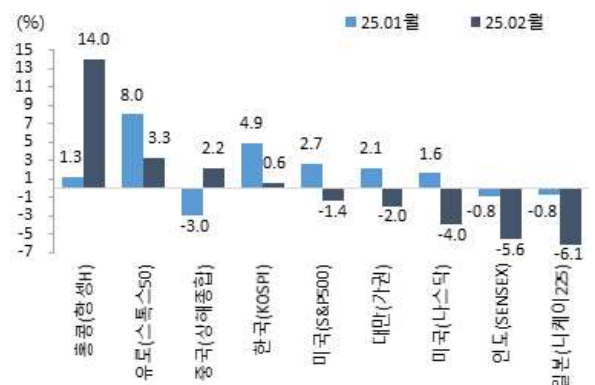
달러인덱스, 원달러 환율



S&P500, KOSPI 지수



25.1~2월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참고 1: 2.25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]

■ (2월 통화정책 결정문의 주요 변화 내용)

- 직전(25.1월) 금통위에 비해 성장 전망치의 하향조정(1.9% → 1.5%)과 물가 안정세를 언급

| | 1월 금통위 | 2월 금통위 |
|------|---|---|
| 성장 | 지난 11월 전망(24년 2.2%, 25년 1.9%)을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| 지난 11월 전망치(1.9%)를 큰 폭 하회하는 1.5%로 전망 |
| 물가 |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 |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%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 |
| 외환시장 | 원달러 환율이 국내정치 불확실성 증대,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영향으로 큰 폭 상승 | 국내정치 불확실성, 미국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 |

-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‘기준금리 추가 인하시기’에서 ‘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시기’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연내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화

■ (총재 기자회견 주요발언)

- ① (금리인하 배경)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, 성장하방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

-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예상치를 하회한 24.4분기 GDP를 반영(추경은 미포함)하여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.5%로 하향조정

* 이창용 총재는 과도한 금리인하로 성장을 부양하는 것은 환율·물가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기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(한은은 15~20조 규모의 추경이 실시될 경우 성장률은 0.2%p 오를(1.5% → 1.7%) 것으로 분석)

- 최근 달러강세 기조가 완화된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축소

* 현재 달러인덱스(DXY)는 계엄(12.3일)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1,430원대로 낮아짐

- ② (물가전망)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나 수요둔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.9%로 유지

- 농산물 등 수입물가 오름세는 통화정책보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 유효

- ③ (통화정책 전망)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에 대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동결,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

* 이창용 총재는 2월 회의를 포함하여 올해 2~3회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금통위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

II. 최근 현안: 한·미 장기금리 비동조화 요인 점검

(최근 최근 한·미 장기금리 동향)

- 그동안 동조화되던 한·미 10년 국채금리가 24.9월 이후 미국은 기초적으로 상승(2월 하순 이후 트럼프 관세 우려로 반락)한 반면, 한국은 계속 낮아지는 모습
 - 24.9~25.2월 연준의 기준금리가 100bp 인하되는 동안 미 장기금리는 오히려 31bp 높아졌는데,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
 - 반면, 한국은 기준금리(75bp 인하)에 연동하여 장기금리도 42bp 하락
- 그 결과, 한·미 장기금리 역전폭이 24.9월 70~80bp에서 최근 150bp로 확대(25.1.14일 195bp로 역대 최대치 시현)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(한·미 장기금리 비동조화의 요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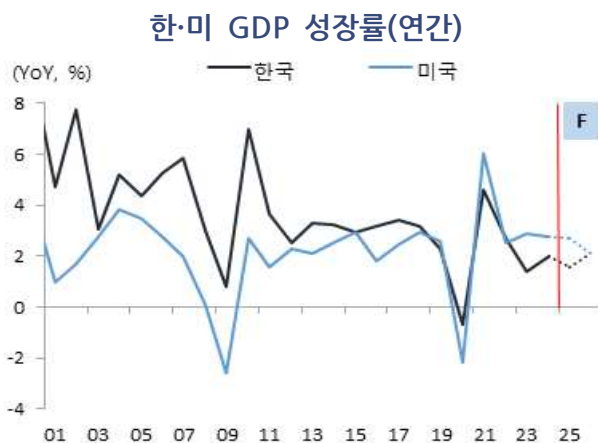
장기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인(실질금리, 인플레이션, term premium)을 중심으로 분석

* 명목 장기금리 = 실질 단기금리 + 기대 인플레이션 + term premium(장기채 보유에 따른 추가요구 수익률)

① [실질 단기금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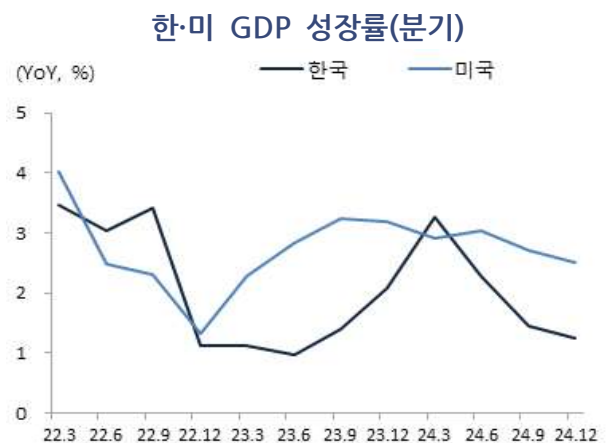
■ 과거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한국 GDP 성장률이 23년부터 미국을 하회(실질 단기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수준에 의해 결정)

- 미국 경제는 이민인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소비수요, 지속적인 노동생산성 향상, AI 등 기술투자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상승
- 반면, 한국의 경우 건설업계 전반 비용 상승과 주택수요 위축에 의해 촉발된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이 국내 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



주: 미국 성장 전망은 트럼프 관세정책을 미반영
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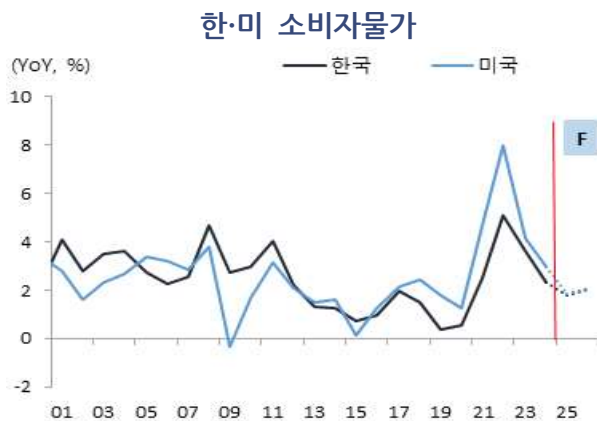
자료: FRED,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② [기대 인플레이션]

■ 22년 이후 동반 하락하던 기대 인플레이션(서베이)이 최근 들어 미국은 급등하고 한국은 안정

- 미국은 고용이 견조(25.1월 실업률 4.0%)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, 관세인상, 이민 규제 등의 정책이 미국 물가 심리를 자극
 - * IB들은 관세가 공약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, 미국 인플레이션이 1.0~2.4%p 높아지고, 이민규제로 건설업·농업·서비스업 등에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
- 반면, 한국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은 물가에 대한 일반인의 적응적 기대, 한은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운용해온 점, 고용시장 둔화 등에 기인¹⁾
 - * 적응적 기대가설은 경제주체가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
 - * 1월 산업별 취업자증감(만명): 건설업 -16.9(11개월 연속 마이너스), 도소매업 -9.1(9개월), 제조업 -5.6(7개월)



주: 미국 물가 전망은 트럼프 관세정책을 미반영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FRED,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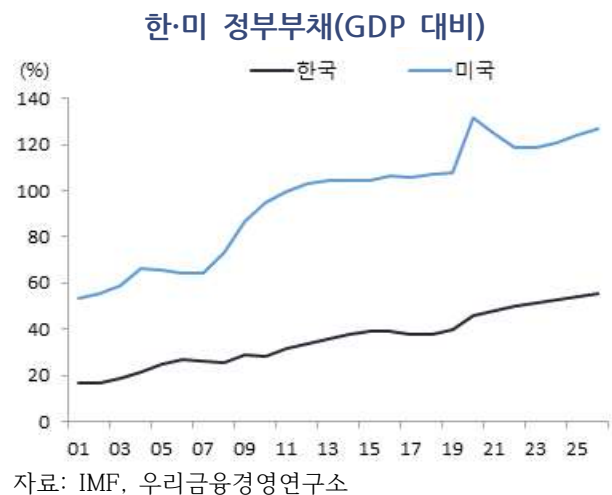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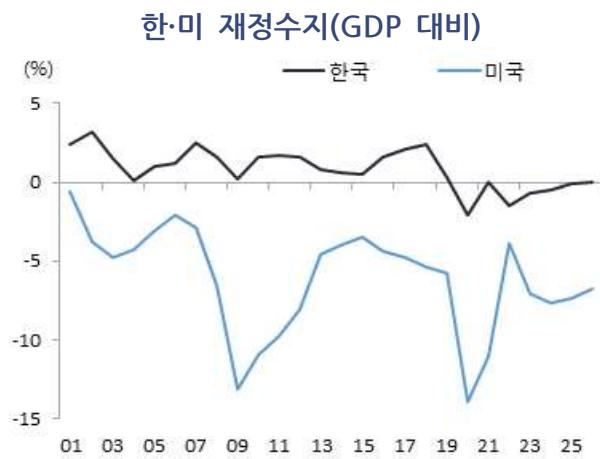
③ [기간 프리미엄(Term Premium)]

■ 미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한국을 큰 폭 상회하고, 장기채 발행 비중도 한국보다 높아질 전망

- 미국은 팬데믹 발발 이후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(20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GDP의 13.9% 시현)
 - *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: 00~19년 평균 83% → 20~23년 123%
- 특히,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만기 도래하는 단기채(3조 규모)를 중·장기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
 - * 바이든 행정부 당시 옐런 재무장관은 단기 채권 비중을 15~20%로 유지해야한다는 국채차입자문위원회(TBAC)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22%로 비중을 높게 유지(24년 상반기 국채의 84%를 1년 이하 단기채로 공급)

1) '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과 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'(자본시장연구원, 24.11월)

- 반면, 한국은 재정 건전성 기초를 유지하며 20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.8%에 그쳤으며, 24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(2.9%) 비율도 재정준칙 한도(3.0%) 내에서 유지
- 아울러 25년 국고채 발행계획(12.30일)에서 월별 균등발행원칙을 견지하고, 연물별 발행비중도 대체로 유지할 방침을 발표
 - * 총 발행한도는 197.6조원(순발행 80.0조원)이며, 시기별로는 상반기 55~60%, 1분기 27~30% 발행 예정. 장기물 발행의 유연성을 소폭 확대($35\pm 3 \rightarrow 5\%$)하고 단기($30\pm 3\%$)와 중기($35\pm 3\%$) 발행비중을 유지



(향후 전망)

■ 앞서 살펴본 3대 요인을 종합하면, 당분간 한·미 장기금리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

- ① 한·미 GDP 성장률 격차는 국내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영향으로 확대될 전망
- ② 한·미 기대 인플레이션 격차도 관세정책이 양국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*을 감안하면 유지될 가능성
 - *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 내 물가압력을 높이는 반면, 교역상대국(한국 포함)에는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
- ③ 한·미 term premium 격차는 국내 추경 집행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축소될 여지가 있으나, 당분간 대규모 추경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

- * 2월 하순 이후 트럼프 관세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미 경기 악화 우려(금리 하락 요인)가 수입물가 자극 가능성(금리 상승요인)을 압도하여 美 10년 국채금리가 반락
- * 한국 10년 국채금리도 국내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하락폭이 확대(양국간 장기 금리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)

■ 이에 따라 한·미 장기국채 스프레드를 반영해온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중 1,4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III. 3월 금융시장 전망

- 3월은 트럼프 관세정책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, 국고채 금리는 한은 금리인하 기대로 소폭 하락하며, 증시는 연기금 순매수 기조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로 소폭 반등할 전망

[금리]

- 미 연준은 고용·소비 등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,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3.18~19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(상단 4.50%)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
 - * 비농가 고용(전기비, 만명): 24.10월 4.4 → 11월 26.1 → 12월 30.7 → 25.1월 14.3
 - * 개인소비지출(PCE): 24.10월 0.4% → 11월 0.5% → 12월 0.8% → 25.1월 -0.2%
 - * CPI 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24.10월 2.6 → 11월 2.7 → 12월 2.9 → 25.1월 3.0
 - * 2.25일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현재 관망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려면 트럼프 정책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발언. 2.26일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도 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
 - * CME FedWatch Tool(3.3일)은 미 연준이 올해 3차례(6·9·12월 각각 25bp씩)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
- 국고채 금리는 2%대로 반등한 소비자물가 상승률, 고환율 지속, 상반기 추경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, 국내 경제 하방위험 확대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여 하락할 전망
 - * CPI 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24.10월 1.7 → 11월 1.8 → 12월 1.8 → 25.1월 2.0
 - *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(기말, %): 24.1월 2.57 → 2월 2.57 → 3월F 2.50

미국 소비자물가, 소비자신뢰지수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한국 소매판매, 통관수출



자료: 통계청,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환율]

-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, 한·미간 장기금리 차이 등을 반영하여 1,430~1,46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다만,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둔화, BOJ 추가 금리 인상 기대에 의한 엔화 강세, 단기금등에 따른 반발 매도 등으로 월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향 조정을 예상
- * 3.3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·캐나다에 대한 25%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3.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, 중국에 대해서는 10%를 더한 20%의 추가 관세 명령에도 서명
- *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신뢰지수(98.3)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1.8월 이후 최대폭(-7p)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며,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
- *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)이 4.0%로 23.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엔달러 환율은 150엔대를 하회(3.4일 148.8엔)
- * 원달러 환율 전망(기말, %): 24.25.1월 1,454 → 2월 1,460 → 3월F 1,440

일본 소비자물가, 10년물 국채금리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원달러 환율, 한미 금리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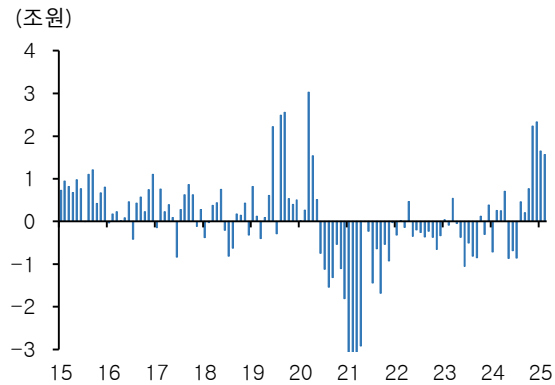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국내 증시는 정치적 혼란 완화와 연기금 순매수 기초, 미 어닝시즌 서프라이즈 가능성,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후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기대감 등으로 KOSPI 2,600pt대 후반 안착을 시도할 전망
 - 연기금은 KOSPI PBR 하단 0.8배에 근접하면 순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이며, 24.11월 이후 순매수(KOSPI 7.8조원)를 포함해도 추가 매수 여력이 상존

* 24.11월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11.9% Vs. 25년 국내주식 목표 14.9%

* KOSPI 지수 전망(기말, pt): 25.1월 2,517 → 25.2월 2,533 → 3월F 2,680

연기금의 월별 KOSPI 누적순매수 추이



자료: Quantiwise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KOSPI 12m-forward PBR



자료: Quantiwise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국내외 금융시장지표 전망

| 항목 | | 단위 | 2022 | 2023 | 2024 | 25.2월 | 25.3월(F) | 12월(F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기준금리 | 미국 | 기말, % | 4.50 | 5.50 | 4.50 | 4.50 | 4.50 | 4.00 |
| | 한국 | 기말, % | 3.25 | 3.50 | 3.00 | 2.75 | 2.75 | 2.25 |
| | 유로존 | 기말, % | 2.50 | 4.50 | 3.15 | 2.90 | 2.65 | 1.90 |
| | 일본 ¹⁾ | 기말, % | -0.10 | -0.10 | 0.25 | 0.50 | 0.50 | 0.75 |
| | 중국 ²⁾ | 기말, % | 4.30 | 4.20 | 3.60 | 3.60 | 3.60 | 3.10 |
| 국채금리 | 미국 10년 | 기말, % | 3.87 | 3.88 | 4.53 | 4.21 | 4.20 | 4.15 |
| | 한국 3년 | 기말, % | 3.72 | 3.15 | 2.60 | 2.57 | 2.50 | 2.25 |
| | 한국 10년 | 기말, % | 3.73 | 3.18 | 2.86 | 2.71 | 2.70 | 2.50 |
| | 독일 10년 | 기말, % | 2.57 | 2.02 | 2.37 | 2.41 | 2.40 | 2.00 |
| | 일본 10년 | 기말, % | 0.42 | 0.61 | 1.10 | 1.38 | 1.45 | 1.55 |
| 환율 | 원/달러 | 기말, 원 | 1,265 | 1,288 | 1,472 | 1,460 | 1,440 | 1,350 |
| | 달러/유로 | 기말, 달러 | 1.071 | 1.104 | 1.035 | 1.038 | 1.065 | 1.080 |
| | 엔/달러 | 기말, 엔 | 131.1 | 141.0 | 157.2 | 150.6 | 149.0 | 145.0 |
| | 위안/달러 | 기말, 위안 | 6.90 | 7.10 | 7.30 | 7.28 | 7.30 | 7.10 |
| 주가 | S&P500 | 기말 | 3,840 | 4,770 | 5,882 | 5,955 | 6,100 | 7,100 |
| | KOSPI | 기말 | 2,236 | 2,655 | 2,399 | 2,533 | 2,680 | 2,800 |
| | KOSDAQ | 기말 | 679 | 866 | 678 | 774 | 800 | 950 |

주: 1) 상단 기준, 2) 5년물 LPR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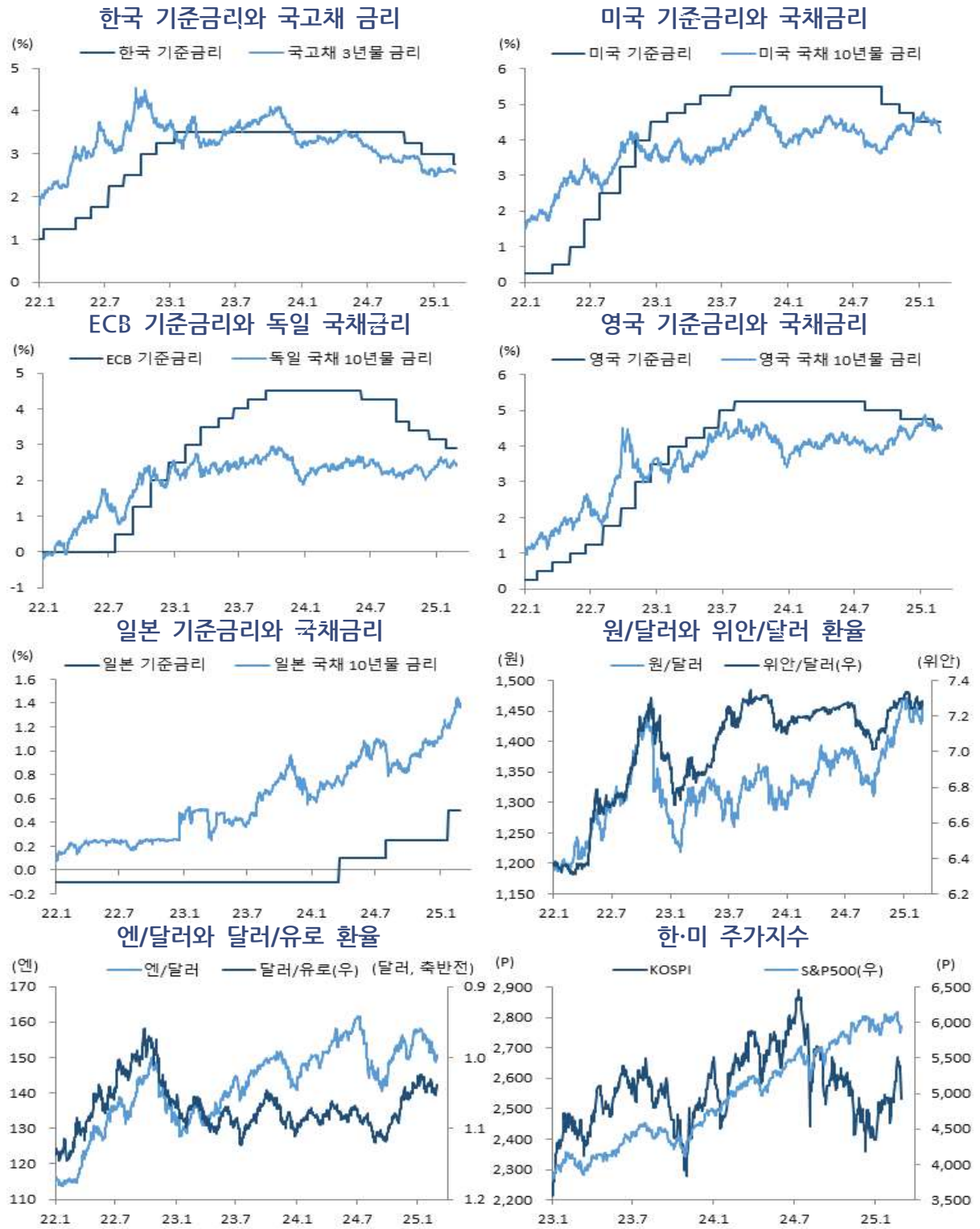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 1 |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

| 국가(지역) | 항목 | 단위 | 24.2분기 | 3분기 | 4분기 | 24.10월 | 11월 | 12월 | 25.1월 | 2월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한국 | GDP | 전기비, % | -0.2 | 0.1 | 0.1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기비, % | -0.3 | 0.8 | -0.5 | -0.7 | -0.7 | 0.2 | -0.6 | - |
| | 서비스업생산 | 전기비, % | -0.1 | -0.2 | 0.6 | 0.9 | -0.4 | 1.1 | -0.8 | - |
| | 광공업생산 | 전기비, % | 1.9 | -0.6 | 1.5 | 0.5 | -2.5 | 3.9 | -2.3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51.0 | 50.5 | 49.3 | 48.3 | 50.6 | 49.0 | 50.3 | 49.9 |
| | 수출 | 전년동기비, % | 10.1 | 10.5 | 4.2 | 4.6 | 1.3 | 6.6 | -10.2 | 1.0 |
| | 취업자 | 전년동기비, 만명 | 14.5 | 14.6 | 5.1 | 8.3 | 12.3 | -5.2 | 13.5 | -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7 | 2.1 | 1.6 | 1.3 | 1.5 | 1.9 | 2.2 | - |
| | 근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1 | 2.0 | 1.8 | 1.7 | 1.8 | 1.9 | 2.0 | - |
| | 은행 가계대출 | 전기비, 조원 | 16.9 | 20.2 | 5.3 | 3.8 | 1.6 | -0.1 | -0.5 | - |
| 미국 | GDP | 전기비연율, % | 3.0 | 3.1 | 2.3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기비, % | 0.5 | 1.3 | 1.8 | 0.6 | 0.7 | 0.7 | -0.9 | - |
| | 개인소비지출 | 전기비, % | 1.3 | 1.3 | 1.6 | 0.4 | 0.5 | 0.8 | -0.2 | - |
| | 산업생산 | 전기비, % | 0.6 | -0.2 | -0.3 | -0.5 | -0.1 | 1.0 | 0.5 | - |
| | ISM제조업 | 기준선=50 | 48.5 | 47.3 | 48.2 | 46.9 | 48.4 | 49.2 | 50.9 | 50.3 |
| | ISM서비스업 | 기준선=50 | 50.8 | 52.5 | 54.1 | 55.8 | 52.5 | 54.0 | 52.8 | - |
| | 비농가고용 | 전기비, 만명 | 39.8 | 39.9 | 61.2 | 4.4 | 26.1 | 30.7 | 14.3 | - |
| | 실업률 | % | 4.0 | 4.2 | 4.1 | 4.1 | 4.2 | 4.1 | 4.0 | -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3.2 | 2.7 | 2.7 | 2.6 | 2.7 | 2.9 | 3.0 | - |
| | 근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3.4 | 3.3 | 3.3 | 3.3 | 3.3 | 3.2 | 3.3 | - |
| 유로존 | GDP | 전기비, % | 0.2 | 0.4 | 0.1 | - | - | - | - | - |
| | (독일) | 전기비, % | -0.3 | 0.1 | -0.2 | - | - | - | - | - |
| | (프랑스) | 전기비, % | 0.3 | 0.4 | -0.1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기비, % | 0.2 | 1.1 | 0.4 | -0.3 | 0.0 | -0.2 | - | - |
| | 산업생산 | 전기비, % | -0.2 | -0.5 | -0.5 | 0.2 | 0.4 | -1.1 | - | - |
| | 수출 | 전년동기비, % | 1.7 | 2.3 | 1.3 | 2.4 | -1.4 | 3.1 | -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46.3 | 45.5 | 45.4 | 46.0 | 45.2 | 45.1 | 46.6 | 47.6 |
| | 실업률 | % | 6.4 | 6.3 | 6.3 | 6.3 | 6.2 | 6.3 | 6.2 | -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5 | 2.2 | 2.2 | 2.0 | 2.2 | 2.4 | 2.5 | 2.4 |
| | 근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8 | 2.8 | 2.7 | 2.7 | 2.7 | 2.7 | 2.7 | - |
| 영국 | GDP | 전기비, % | 0.4 | 0.0 | 0.1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기비, % | -0.5 | 1.3 | -0.9 | -0.8 | -0.1 | -0.6 | 1.6 | - |
| | 산업생산 | 전기비, % | -0.5 | -0.3 | -0.8 | -0.6 | -0.5 | 0.6 | - | - |
| | 수출 | 전년동기비, % | -7.6 | -3.9 | -11.9 | -11.9 | -12.8 | -11.0 | -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50.4 | 52.0 | 48.3 | 49.9 | 48.0 | 47.0 | 48.3 | 46.9 |
| | 실업률 | % | 4.2 | 4.3 | 0.0 | 4.4 | 4.4 | - | - | -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1 | 2.0 | 2.5 | 2.3 | 2.6 | 2.5 | 3.0 | - |
| 일본 | GDP | 전기비, % | 0.7 | 0.4 | 0.7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기비, % | 1.8 | 1.1 | -0.3 | -0.2 | 1.9 | -0.8 | 0.5 | - |
| | 산업생산 | 전기비, % | 2.7 | -0.4 | 1.1 | 2.8 | -2.2 | -0.2 | -1.1 | - |
| | 수출 | 전년동기비, % | 8.8 | 4.5 | 3.2 | 3.1 | 3.8 | 2.8 | 7.3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50.0 | 49.5 | 49.3 | 49.2 | 49.0 | 49.6 | 48.7 | 49.0 |
| | 실업률 | % | 2.6 | 2.5 | 2.5 | 2.5 | 2.5 | 2.5 | 2.5 | -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2.7 | 2.8 | 2.9 | 2.2 | 2.9 | 3.7 | 4.0 | - |
| 중국 | GDP | 전년동기비, % | 5.0 | 4.8 | 5.0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매판매 | 전년동기비, % | 2.6 | 2.7 | 3.8 | 4.8 | 3.0 | 3.7 | 0.0 | - |
| | 산업생산 | 전년동기비, % | 5.9 | 5.0 | 5.6 | 5.3 | 5.4 | 6.2 | 0.0 | - |
| | 고정자산투자 | 연누적, 전년비, % | 3.9 | 3.4 | 3.2 | 3.4 | 3.3 | 3.2 | 0.0 | - |
| | 수출 | 전년동기비, % | 5.7 | 5.9 | 9.9 | 12.7 | 6.6 | 10.7 | 0.0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49.8 | 49.4 | 50.2 | 50.1 | 50.3 | 50.1 | 49.1 | 50.2 |
| | 소비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0.3 | 0.5 | 0.2 | 0.3 | 0.2 | 0.1 | 0.5 | - |
| 글로벌 | 생산자물가 | 전년동기비, % | -1.6 | -1.8 | -2.6 | -2.9 | -2.5 | -2.3 | -2.3 | - |
| | 교역량 | 전년동기비, % | 1.5 | 2.4 | 2.8 | 2.0 | 3.2 | 3.3 | - | - |
| | 제조업PMI | 기준선=50 | 50.7 | 49.3 | 49.7 | 49.4 | 50.0 | 49.6 | 50.1 | 50.6 |

자료: LSE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 2 | 국내외 금리·환율·주가 추이



*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·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.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(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)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